

■ 법률 칼럼

최근 이민 소식



1. 3순위 비속련 취업이민 문호 크게 후퇴

미 국무부가 최근에 발표한 2023년 2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3순위 비속련 취업이민 문호가 크게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주권을 승인해 줄 수 있는 우선일자 가능일이 2020년1월1일로 지난달에 비해서 5개월 후퇴하였고, 폼 LC 승인 후에 I-485 접수 가능일도 우선일자 2022년9월 8일에서 2020년2월 1일로 2년 7개월이 후퇴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지금 폼 LC가 승인이 된 경우도 우선일자 즉 폼 접수일이 2020년1월1일이거나 그 이전이 아니면 I-485를 접수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3순위 학사/숙련공의 경우는 승인 가능일/접수 가능일이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폼LC가 승인된 경우 바로 I-140과 I-485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순위 경우도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승인 가능일 2022년 11월 1일, 접수 가능일 2022년 12월 1일로 발표되어 사실상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 영주권자 배우자 및 미성년자 자녀의 영주권 신청

2023년 2월에도 1월과 마찬가지로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영주권자의 미성년 자녀가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청원서(I-130)와 영주권 신청서(I-

485) 동시 접수가 가능합니다.

3. NIW등으로 급행 서비스 확대

이민국은 오는 1월30일부터 1순위 취업이민(다국적 기업의 임원/간부)과 NIW(National Interest Waiver)까지 급행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민국 발표에 따르면 현재 심사가 계류 중인(pending) 케이스뿐만 아니고 신규로 접수하는 케이스도 1월 30일부터 급행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2023년 3월부터는 일반 OPT 그리고 스텝 OPT를 신청하는 학생들 가운데 임시노동허가증 신청서(I-765)가 접수되어 심사 중인 경우에 급행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고 4월부터는 일반/스텝 OPT를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도 급행서비스가 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오는 5월부터는 일반 신분 변경(학생으로/연장의 경우도 급행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공고되었습니다.

사진=shutterstock

Law Offices of
Joseph KW Cho
천관우 변호사

- LA Office: (213) 232-1655
- OC Office: (714) 522-5220

매주 첫째주 월요일 라디오 코리아 이민상담 진행



■ 전문의 칼럼

치매의 진단과 치료

치매는 노년층의 흔한 사망 원인 중 하나입니다. 메디케어 서베이에 따르면, 치매가 심부전 다음으로 높은 사망 원인으로 전체 사망 원인의 약 19%를 차지한다고 조사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치매의 유병률은 65세 이상에서 약 11.3%이고 나이가 들면서 유병률도 급격히 올라갑니다. 또한 치매는 여성에게 더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고 미국에서 알츠하이머 치매의 3분의 2는 여성입니다.

치매의 주요 초기 증상 중 하나가 기억력 저하이지만 환자 본인이 이러한 증상을 의사한테 직접 호소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고, 주로 가족들이 이런 증상을 먼저 인식하고 이야기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망증과 초기 치매가 증상이 비슷하여 오인되는 경우가 많은데, 치매는 새로운 기억의 저장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일에 대하여 힌트를 주어도 기억을 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건망증의 경우는 기억을 부분 부분 못하며 힌트를 주면 생각해 낼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밖의 주요 증상으로는 지남력 및 공간 지각력 장애(의숙한 장소에서 길을 잃음), 언어 능력 장애(단어가 잘 안 떠오름), 추리 능력 장애(예측하지 않은 상황에 잘 대처 못함), 복잡한 업무 처리 능력 저하(은행계좌 관리를 못함) 등이 있습니다. 노화에 따르는 정상적인 인지기능 저하는 주로 기억력과 정보처리 속도의 경한 변화와 연관되어 있으며 정상 노화와 구분되는 치매의 중요한 특징으로는, 정상 노화에서의 인지기능 저하는 일상생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치매가 진행되면서 이차적으로 기분 장애, 망상, 환각, 성격의 변화 등이 흔히 나타나는데, 노인우울증의 경우 치매와 비슷한 증상을 한 가성치매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어서 꼭 감별진단

해야 하는 질환입니다. 치매는 뇌기능의 전반적인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모든 질환이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원인 미상의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60% 이상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뇌의 혈액순환 장애로 생기는 혈관성 치매가 20-30%, 기타 원인으로 인한 치매가 10-20% 정도를 차지합니다.

현재 주로 사용 중인 치매 치료약은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을 분해시키는 효소를 억제시키는 약물(도네페질)과 NMDA 수용체 길항제(메만틴)가 있습니다. 작년에 아두카누맙이 18년 만에 새로 나온 치매 치료제로 FDA 승인을 받긴 하였지만 그 효능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알츠하이머성 치매는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이 뇌에 쌓여서 생기는 것인데, 아두카누맙이 이 아밀로이드를 줄이는 데에는 효과가 있었지만 임상적으로 환자의 증상 호전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합니다.

혈관성 치매는 대개 만성질환인 고혈압, 당뇨, 흡연 등이 위험 인자이기 때문에 이 위험 인자들을 잘 조절하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뇌의 혈류 순환을 개선하고, 뇌세포 대사를 촉진 시켜서 뇌신경 전달 물질이 잘 작용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치매 예방과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치매의 예방을 위해서는 적당한 근력 및 유산소 운동과 함께 낱말 맞추기, 퍼즐, 그림 그리기 등의 뇌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김성현 내과 보드전문
(714) 562-9139
6131 Orangethorpe Ave, #150A
Buena Park, CA 90620



프리미어 공인세무 그룹

세금보고 미국 전 지역 서비스



- 세금보고
- 법인설립
- 해외자산보고
- 연체세금 해결
- 세무감사대행
- 상속, 증여세금보고

PREMIER TAX GROUP (714)530-2033
8942 Garden Grove Blvd. #203, Garden Grove, CA 92844

각종 세금 관련 상담 및 문의
info@isemusa.com
taxcapital@gmail.com